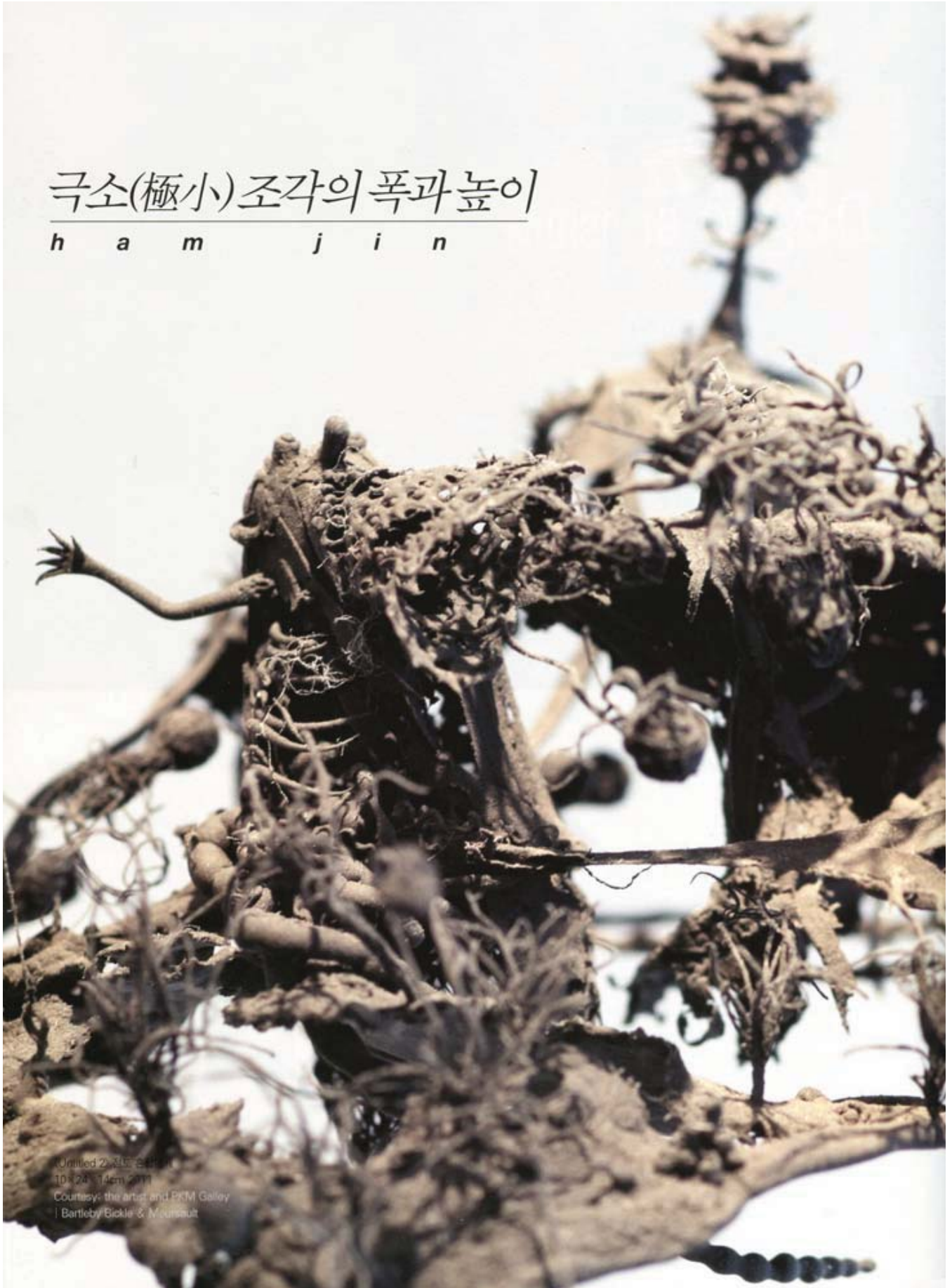


# 극소(極小) 조각의 폭과 높이

h a m j i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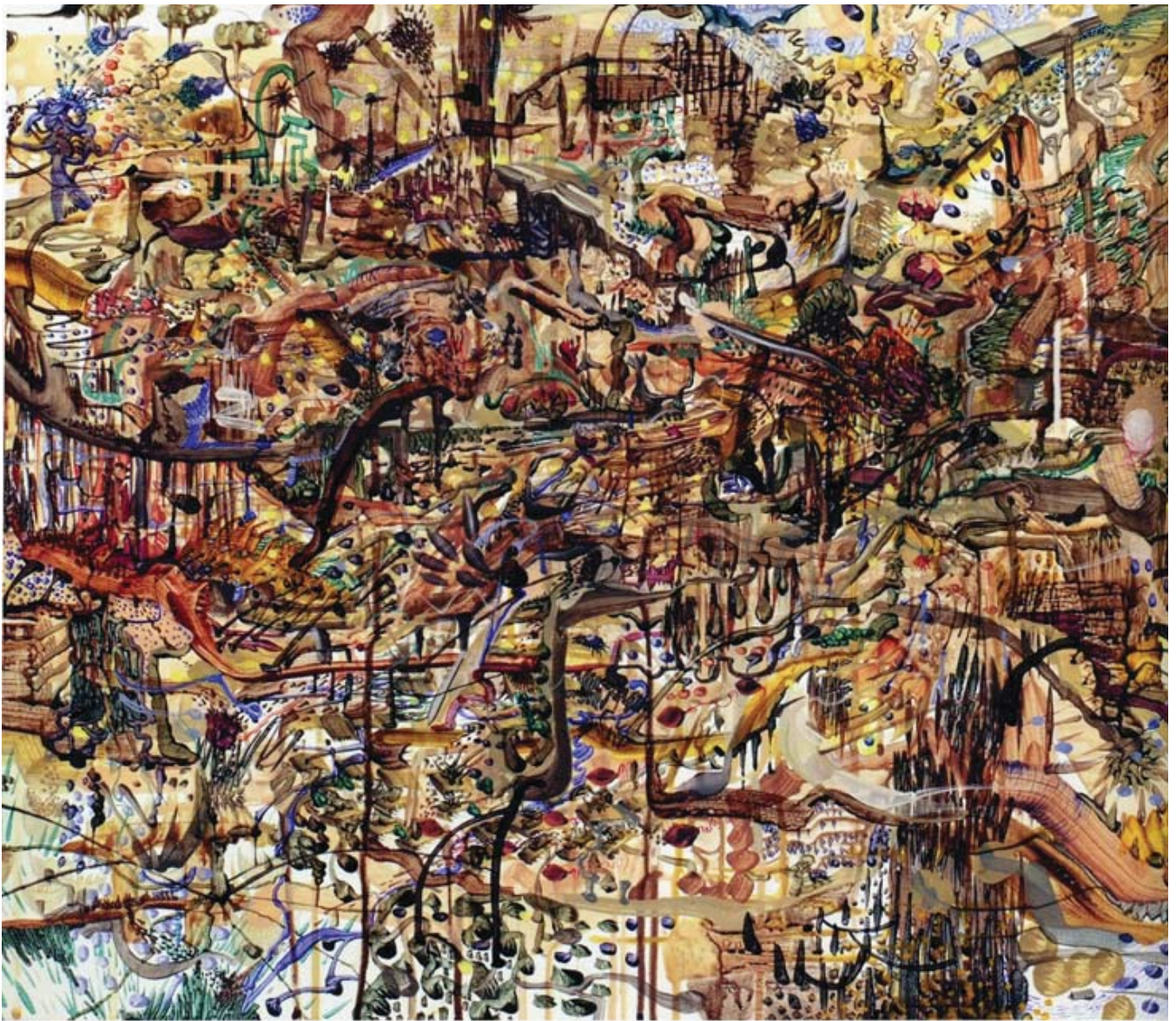
© Limited 2011 Kang Su-mi  
10-24-14cm 2011  
Courtesy: the artist and PCM Gallery  
| Bartleby Bickle & Meunault

강수미, “극소(極小)조각의 폭과 높이,” <월간미술>, 2011년 7월.

함진의 개인전 〈Barkley Bickle & Meursault〉(PKM갤러리, 6.3~7.15)이 열리는 전시장을 들어선 관객의 입에서는 탄성이 그칠 줄 모른다. 전시장의 천장에 매달리거나 벽면과 바닥에 설치된 작업들은 대개 그로테스크한 형상을 띠고 있는데, 자세히 관찰하는 수고를 하면 무엇인가 완성된 이야기 구조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는 작가가 그동안 추구했던 마이크로코스믹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더욱 견고한 상상력이 더해진 결과리라. 함진의 공상의 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 궁금해진다.







Courtesy: the artist and PKM Gallery | Bartleby Bickel & Meunault

#### 강수미 미술비평

글로벌 검색엔진 회사 구글이 2011년 2월 서비스를 개시한 '아트 프로젝트(Art Project, www.googleartproject.com)'는 한국의 젊은 작가 합진의 미술을 '동시대의 시각과 감수성'이라는 화두로 볼 계기를 제공한다. 양자는 미술작품에서 극단적으로 미시적인 세부(microscopic detail)를 감상자의 눈앞에 펼쳐놓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또한 그렇게 시각화되는 대상이 자연적으로 타고난 인간의 육안을 넘어서거나, 사람들이 일상

적인 수준에서 상상하는 이미지의 세계를 초과 혹은 현격히 밀들 것을 목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를테면 구글 아트 프로젝트가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뉴욕 모마의 고희 그림 <별이 빛나는 밤>은 원작을 '기가픽셀 사진 캡처 기술'로 찍은 것인데, 이 디지털 이미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화가 자신도 보거나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한 물질들의 현미경적인 디테일이다. 단지 웹 창에 표시된 네모막대만 오른쪽 확대(+) 방향으로

밀어주면, 사람들은 고희의 그 유명한 그림에서 이제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세부가 만들어내는 장관'을 볼 수 있다. 손가락이 딱하는 한순간의 동작에 따라 푸른색과 흰색의 짧은 붓질로 묘사된 회오리 패턴의 하늘 풍경이 완전히 해체되고, <별이 빛나는 밤>은 엄청난 속도로 미끄러지는 물감들의 파동이 지질학적 단층이 된다.

이렇듯 전체에서 극단적 세부로 침투해가는 시각, 자연과의 닮음 관계에서 멀어져 극





Courtesy: the artist and PKM Gallery | Bartleby Bickle & Meursault

(Untitled 5) 캔버스에 아크릴 53×45.5cm 2011 왼쪽 페이지 (Untitled 7) 캔버스에 아크릴 60.5×50cm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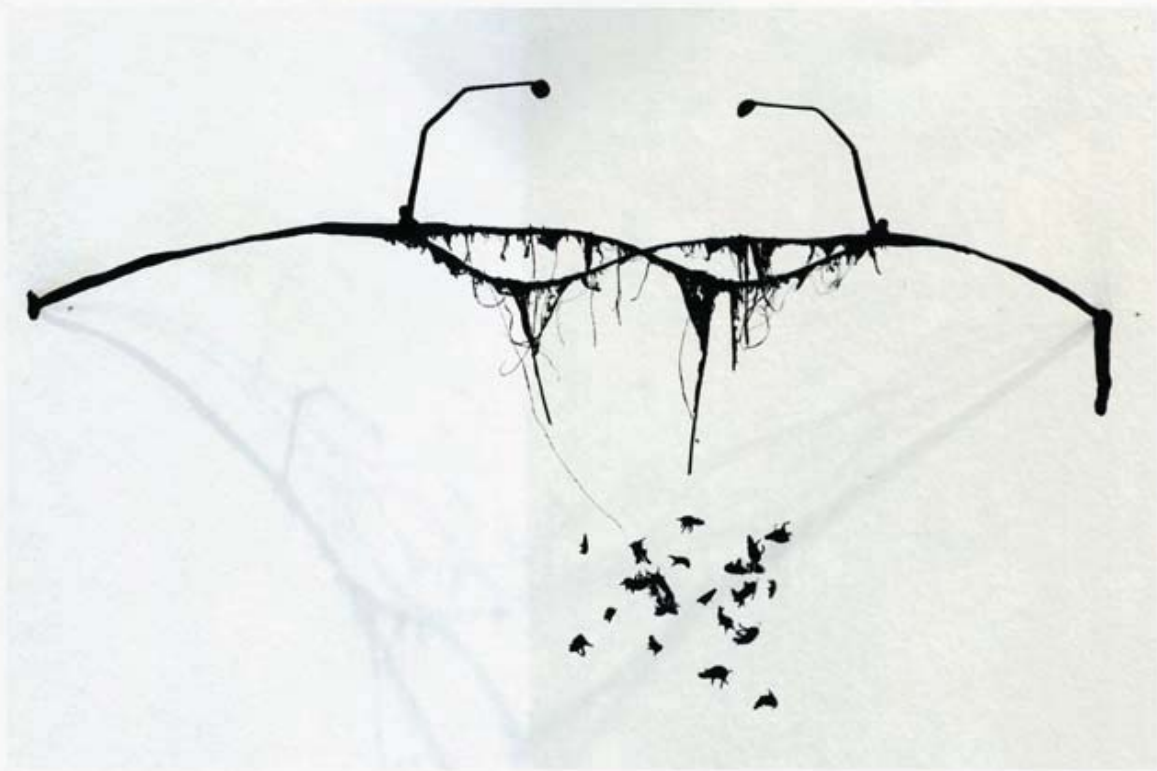
도로 자족적이며 촉각적으로 변해가는 이미지,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감각적 경향으로 꼽을 만한 요소들이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논하겠지만, 십여 년 넘게 수지점토 등의 재료로 1cm도 안 되는 극소(極小)의 형상들을 빚어 미니어처 세계를 구축해온 함진의 미술이 비야호로 공유하기 시작한 동시대적 성향이다.

물론 이제까지 함진의 작품들이 대중적 수용 면에서나 전문가의 비평 차원에서 호소

력을 발휘했던 지점은 우선 작가의 동화적 혹은 유아적(이라고 쉽게 간주해버리는) 상상력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상을 물질을 통해 구체적인 형상으로 실현해내는 독특한 표현기법, 작업과정에 투여됐을 긴 시간과 에너지, 전적으로 수작업에 의존하는 창작형태 및 그 육체노동의 세밀함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위에서 구글 아트 프로젝트와 함진의 작업을 같은 궤에 놓고 논하는 일은 어딘가 어귀가 맞지 않고, 후자를 전자에 비취 화

대 해석하는 것처럼 읽힐지 모른다. 즉 최첨단 광학 테크놀로지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산업이 열어젖힌 구글의 현란하고 경이로운 '기가픽셀 작품'의 세계는, 지극히 사적이고 수공예적인 작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함진의 미술과 대극적 지점에 있거나 전혀 다른 원천을 가졌다고 말이다. 맞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태생적 신체의 감각능력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극미립자로 분해되고 나노단위로 결정화되는 사물과 이미지에 탐닉





(Untitled 11) 점토 혼합매체 7.3×32×4cm 2011

Courtesy: the artist and PKM Gallery | Bartleby Bickie & Meursault

하는 기제는 새로 출현한 디지털 기기나 소프트웨어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와는 달리 초(超)광학의 시각과 탈(脫)인간 신체의 감각이 우리의 미의식과 지각방식, 그리고 취향에도 침투해있음을 새겨보자. 그 경우, 돋보기를 들이대야만 겨우 볼 수 있는 합진의 '극소 조각'이 부지불식간에 담고 있는 동시대성이 의식될 것이다.

"아주 작은 스케일로도 스펙터클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테크놀로지 와 비슷해요." 이는 합진의 말로, 2004년 개인전 도록의 한 영문 글에 인용돼 있다. 작가는 이때, 점점 크기는 작아지고 기능은 복잡해지는 휴대전화를 예로 들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합진 작품의 외관상 특징과 작품이 암시하는 내용 및 정서를 떠올리면 이 같은 작가의 주장은 흥미롭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에는 이렇다할 만한 기술 공학이 없으며,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기술의

신기원을 달성해가는 동시대문화로 따지면 오히려 원초적이거나 미개하고 때로 황당무계하기한 형상과 내러티브가 중심축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진은 더욱 첨예해지는 테크놀로지/기계와, 손으로 고무찰흙을 폄지락거리는 자신의 (창조)행위/작품에 비슷한 대목이 있음을 강조했다. 작가의 전심이야 비평이 따질 수 없는 노릇이다. 다만 우리가 의미부여할 부분은 합진이 단지 작고 귀여운 것에 기우는 대중의 취미와 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에서 극히 작은 스케일의 조각을 만든다기보다는, 현대의 테크놀로지와 그 기기들이 전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일종의 과학적/감각적 질서를 간파하며 그렇게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요컨대 합진이 실제 킥라면에 손가락 마디 한 개 크기로 만든 어묵 얼굴 인형들을 걸쳐놓는 식으로 짐짓 만화적 공상을 모방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아적 발상은 아니라는 얘기다. 또

개인전(《애완전(2004)》)이 열리는 갤러리 벽과 공간은 정작 텅 비우고, 전시장 바닥의 겨우 2cm 내외 틈새에다가 점토인간들의 세상 이야기를 삼입해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순진한 동화는 아니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 한실공간으로부터 지족적 이미지로

꽤 많은 사람이 1999년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투비아다방에서 열린 합진의 데뷔 전시를 기억할 것이다. 2011년 현재 미술계의 전시 공간은 엄청나게 다변화했다. 그런 만큼 낡고 거친 시멘트 구조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일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용도가 불투명한 곳 같은 분위기를 유지했던 과거 인사동의 사투비아다방이 가진 장소 특성과 그 가치를 지금 여기서 변별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분명 그 전시장은 19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한국 현대미술의 실험과 도전이 발생하는 인류배터 역할을 했는데, 합진의

첫 개인전은 그런 사루비아다방의 역동성과 전위를 개시하고 확증해낸 가장 중요한 전시였다. 당시 사람들은 검푸른 색 시멘트벽과 바다와 기둥의 곳곳에서 산란된 듯, 또는 거기 기생하는 듯 설치됐던 함진의 마이크로 조각에 환호했다. 인간을 연상시키지만 결코 인간과 닮지 않은 모습의 기괴한 피조물들, 그 쿵알만큼 작은 조각들이 사루비아다방의 깨진 벽 틈에서 쏟아져 나오고, 때로는 진짜 딸치나 각종 폐기물과 뒤엉켜 만들어내는 미시적 풍경은 그때까지 한국의 주류미술이 취한 미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을 가리켰기 때문이다. 그 풍경은 근엄하고 초연한 미의식으로 화이트큐브 속에 자발적으로 유쾌된 한국모더니즘 회화나 조각과는 달리, 현실공간의 물리적 속성과 그런 장소의 우발적 현상을 모태로 탄생한 것이다. 또 무엇보다 가까이 그런 일상의 번잡함, 물건들의 속물성, 개별 장소의 현재 상태와 작가의 상상력 및 테크닉이 상호 침투되어야만 가능한 '이미지-공간'이었다. 관객들이 당시 함진의 조각 설치에 열광하고, 즐김과 더불어 지지를 보냈던 이유는, 말하자면 이처럼 삶의 범속한 면모와 젊은 작가의 현대미술이 현재진행형으로 공속(公屬) 가능하다는 전망에 있었다.

첫 개인전 이후 함진은 2004년 PKM 갤러리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그것이 앞서 여러 곳에서 언급한 작품들로 이뤄진 전시이다. 첫 전시와 두 번째 전시 사이의 5년이라는 공백은 현대미술의 빠른 변화속도를 고려하면 의미심장할 정도로 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애완(愛玩)전>에서 함진은 별다른 변화를 꾀하지 않았던 것 같다. 물론 작가는 이때 상업 화랑의 백색 정방형 공간을 일종의 "감옥"으로 상징하고, 예의마이크로 고무인형들이 "순가락 탈출 작전"을 벌인다는 식의 내러티브, 즉 한편으로는 클레이 애니메이션 동화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제도 비판 미술 성격을 띤 서사를 창안했다. 하지만 그것은 외형상 사루비아다방 전시를 환기시켰으며, 작업의

개념구조 또한 이전보다 큰 비약 없이 이어지는 것이었다. 그의 극소 조각들은 여전히 현실공간과 사물의 어딘가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얻어와 소박한 이미지네이션과 손기술을 보탠 결과물로 보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다시 7년이 지난 2011년 6월 3일, 함진은 PKM 갤러리에서 세 번째 개인전을 시작했다. 그 전시 풍경을 묘사하자면 이렇다. 온통 검은색으로만 이뤄진 극히 작고 정교한 조형물들이 그리 크지 않은 갤러리의 전시장 1층 여러 곳에 공중 부양된 섬들처럼 떠있다. 멀리서 보면 그것들은 고딕이나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 혹은 그 시대의 세공품으로 보이고, 작품에 바짝 다가서 보면 태곳적 밀림의 미니어처 또는 할리우드 영화감독 팀 버튼이 창안해낸 그로테스크 월드에 가까워 보인다. 그 어느 쪽이든 함진의 이번 전시작들이 이전에 보여줬던 마이크로 조각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 명정한 분리는 우선 검은색 수지점토만으로 단일한 구조를 가진 조형물을 만들어 냈다는 형식적 측면에 기인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비중을 뒤 생각할 부분은 그의 조각이 현실의 물리적 환경이나 사건과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만들어졌던 과거 작업과는 달리, 이번 작업은 작가의 판타지에만 기반을 두고 구축됐다는 점이다. 그런 이유로 함진의 2011년 신작들은 독자적이고 자족적인 면모를 띠고 있다. 여기서는 예전 작품이 감상자에게 유발했던 '그래서 고무인형은 이랬고 저랬대!' 식의 이야기가 부재하다. 그보다 작품은 극소의 크기로 공중에 고립돼 있으면서 우리의 현미경적 관찰을 부채질하고, 그 미시적인 세부 형상들이 내부로부터, 또 더 깊은 내부로부터 펼쳐내는 장관을 상상의 눈으로 확대-축소해가며 보도록 자극한다. 마치 우리가 구글 아트 프로젝트 사이트에 접속해서 세계 17개 미술관이 소장한 미술사의 명작들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확대-축소 막대를 이동시켜가며 볼 때처럼, 흔히 사람들은 이때 오리지널 작품의 이미지와 구글이 제공하는 고화질 이미지 (high resolution



함진은 1978년 태어났다. 강원대 조소과를 졸업했다. 서울과 아오모리, 그리고 취리히 등지에서 총 5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열린 다수의 기획전과 그룹전에 출품했다. 2005년 베니스비엔날레와 후쿠오카 아시아미술 트리엔날레, 2001년 광주비엔날레 등에 출품했다. 현재 서울에서 작업하고 있다.

image)가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물리적인 면에서 원작과 그것을 70억 픽셀로 디지털화한 이미지 사이에는 인과성이 존재한다. 로잘린드 크라우스가 사진이 지표(index)라고 정의했을 때, 그 근거가 됐던 존재와 그 흔적/자국/인영(印影)으로서 사진 이미지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지각 경험 면에서 구글의 기기픽셀작품 이미지와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 원작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함진의 2011년 극소 조각이 빚어내는 관객의 이미지네이션은, 과거에 이 작가의 작품이 현실과 공생하거나 스토리텔링 기능과 병행할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것이 어떤 동시대적 예술의 가치와 기능을 확보할 것인지 논하기는 현재 어렵지만 말이다. ●